

5월 둘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아주경제 구미경실련 "LG전자 구미 TV공장 인도네시아 이전" (p. 1)
(<https://www.ajunews.com/view/20200507175333601>)

Digital Today 핀테크 위크 온라인 전환에도 해외 진출 길 열리나 (p. 2-3)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38>)

여행신문 '뉴노멀 시대' 대비하는 인도네시아 여행업 (p. 4-5)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28>)

ASEAN EXPRESS 인도네시아 거래소 토크립토, 바이낸스로부터 투자 받았다 (p. 6)
(<http://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3929>)
아세안 문화 경제 미디어

구미경실련 "LG전자 구미 TV공장 인도네시아 이전"

류혜경 기자입력 : 2020-05-07 17:59

|| 일부 직원 평택 이동 혹은 명예퇴직 선택하도록 해

LG전자 구미사업장의 TV공장이 인도네시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구미경실련이 7일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LG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TV부문 생산라인 네개 반 라인 중 세개 라인을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남은 한개 반 라인은 구미에 남겨두지만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올레드(OLED) TV·LCD(액정표시장치) TV·컴퓨터용 모니터를 조립·생산하는 A3 공장의 3개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구미사업장에서는 대형 터치 모니터만 생산한다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TV 부문 정규직 인력 480여 명 중 380여 명은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평택에서 현재 있는 인력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는 상황"며 "직원을 통해 이미 명퇴 면담까지 거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나서서 LG전자가 구미시를 떠나지 않도록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LG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LG전자 구미 사업장의 올레드 TV 생산라인 모습.[사진=LG전자 제공]

핀테크 위크 온라인 전환에도 해외 진출 길 열리나

신민경 기자 승인 2020.05.08. 08:40

금융당국 "아세안 4개국 위주 제안서 전달"
싱가포르 통화청·핀테크협회 등 참여의지 보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이 결국 온라인으로 열리게 됐지만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길마저 막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5월 2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해외 유관 기관들의 참가를 추진 중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의 주관기관이다.

이를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주한 대사관과 현지 금융당국, 핀테크 관련 기관들에 협조문을 전달했다.

이들 4개국은 최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19 아세안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우리 핀테크 업체들의 우선 진출 대상국으로 꼽힌바 있다.

대체로 평균 연령이 낮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신기술 흡수가 빠르고 정부 차원의 금융 혁신 의지가 강하다는 평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 국가 중 참여 의사를 알려진 곳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와 우리 측과 협력 방식을 논의 중이다. 핀테크 업체 360여곳이 회원사로 있는 싱가포르 핀테크협회(SFA, Singapore FinTech Association) 또한 행사 참가 신청서를 보내온 상태다.

참여를 확정된 국가와 기관들은 오는 28일부터 별도 배포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체 소개와 주된 사업모델과 핀테크 기술, 자국 사업파트너와 협력 가능한 지점 등을 살피게 된다. 모든 내용은 국가와 상관 없이 영어로 번역돼 제공된다.

당초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지난해(부스 54개)보다 행사장을 넓혀 100개가 넘는 개별 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또 전년과 달리 해외 진출과 투자를 위한 특별 세션이 포함돼 해외 기관과의 트렌드 공유와 네트워킹 기회를 기대했던 핀테크 업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이에 일부 아세안 국가의 참여가 성사될 경우 핀테크 업체들의 갈등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기관과 우리 업체를 비대면으로 주선해 국내 핀테크 서비스를 홍보하고 해외 진입의 여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생활적 거리두기로 바뀌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해외 여러 나라에선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다.

코로나19라는 변수로 B2B 경로가 제한된 상황이므로 이번에 협업이나 유치 성과를 기대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국내 핀테크 업계의 최대 행사를 여러 국가와 공유한다는 데 뜻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뉴노멀 시대' 대비하는 인도네시아 여행업

서희 기자 승인 2020.05.13 10:02

- || 위생기준 코로나 전보다 엄격히 재설정
- || 관광의 디지털화로 간접 상호작용 늘려



인도네시아 여행업계가 호텔, 관광지 등의 위생 기준을 강화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트 호텔

인도네시아의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후에 도래할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관광지의 위생 기준을 높게 재설정하고, 관광의 디지털화를 통해 비대면 상호작용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코넛발리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광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건강과 위생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기본 전제다.

인도네시아 창조경제관광부 위시누타마 쿠수반디오(Wishnutama Kusubandio) 장관은 관광업소의 위생 관련 기준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호텔과 관광명소는 위생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위시누타마 장관은 "뉴노멀 시대에 관광 마케팅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여행지를 홍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방문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위시누타마 장관은 인도네시아 여행 및 여행협회(ASITA) 회원들에게 관광의 디지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염병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져 사람 간 비대면 소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시누타마 장관은 “여전히 일부 관광지과 소규모 숙박시설들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지만, 정부와 기타 기관의 폭넓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거래소 토코크립토, 바이낸스로부터 투자 받았다

최규현 기자 등록 2020.05.13 06:28:03

토코크립토 "인구 세계 4위 인도네시아, 바이낸스 투자 바탕 생태계 적극 확장"



▲ 바이낸스가 인도네시아 거래소 토코크립토에 투자를 결정했다. / 사진=토코크립토 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거래소 토코크립토(Tokocrypto)가 바이낸스(Binance)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토코크립토는 바이낸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신제품과 서비스, 기술 향상, 서비스 확대, 지역 내 블록체인 교육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등에 투자 자금이 쓰일 예정이다.

2018년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한 인도네시아 거래소 토코크립토는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전문 벤처 캐피탈(Crypto Venture Capital)인 QCP 캐피탈이 시드 투자자로 참여중이다.

토코크립토의 공동 창업자인 팡 슈에 카이(Pang Xue Kai) CEO는 "이번 투자 유치는 인도네시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검증하고 글로벌 선두주자의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투자금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선도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방형 금융 생태계 구축에 대한 비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설립자인 창평자오(CZ) CEO는 "빠른 기술 채택과 강력한 경제 성장, 세계 4위의 인구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토코크립토는 현지 규제청의 승인을 받은 파트너로 바이낸스와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 돈의 자유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